

대웅제약 이철배 명예회장 별세

제약기업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했던 대웅제약의 이철배 명예회장이 4월28일 오후 11시20분 향년 82세로 별세했다.

이철배 회장은 1958년 유한양행을 시작으로 제약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1982년 대웅윌리제약 사장에 오르는 등 20여년간 대웅제약과 계열사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일해왔다.

유족으로는 부인 이기상(79세)씨와 3남1녀가 있다.

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며, 발인은 5월1일 오전 7시이다.

<화학저널 2007/04/30>